

# HLB, '고형암 CAR-T'로 글로벌 빅파마 도약

포럼서 포스트항암제 전략 공개  
오는 7월·9월 간암·담관암 신약  
美 FDA 허가 여부 발표 앞뒀

CAR-T 파이프라인 상업화 가능성  
KIR-CAR 플랫폼 확장성 시사도



12일 서울 송파 소재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6 HLB 포럼'에서 진양곤 HLB 그룹 의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HLB그룹

HLB그룹이 고형암 CAR-T 치료제 개발을 미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글로벌 빅파마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HLB그룹은 12일 서울 송파에 위치한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에서 '2026 HLB 포럼'을 개최했다.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담관암 신약 '리라푸그라티닙' 등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여부 발표가 각각 오는 7월과 9월로 예정된 가운데, '포스트항암제'에 중점을 둔 향후 전략을 공개했다. 특히 글로벌 CAR-T 치료제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HLB그룹은 일찍이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를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해 왔다.

CAR-T 치료제는 환자에서 유래한 면역세포인 T세포에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를 장착시켜 다시 환자 몸 안에 넣는 치료제다. 베리스모 테라퓨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CAR-T 치료제 개발을 위한 'KIR-CAR 플랫폼'은 기존 CAR-T 치료제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T세포 탈진 문제를 개선한다. 자연 면역 체계를 모방한 다중 시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는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SynKIR-110, SynKIR-310 등을 구축했고 각각에 대해 임상 1상 초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ynKIR-110 임상은 진행성 난소암, 중피종, 담관암 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간 결과에서는 최고 9명 환자 데이터가 확보됐다. SynKIR-310은 혈액암을 적응증으로 한다. 전임상에서 기존 승인 치료제 대비 우수한 효능과 낮은 부작용 지표를 나타냈다.

이처럼 HLB그룹 상무는 해당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자신도 내비쳤다. 그는 "현재 고형암 CAR-T 분야에서 의미있는 데이터를 내는 곳이 거의 없어 베리스모 기술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지난해 전임상 데이터 발표

때부터 빅파마들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대규모 파트너십이나 기술수출 또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시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교수는 KIR-CAR 플랫폼의 확장성을 시사했다.

도널드 시걸 교수는 "CAR-T 치료제는 악성 종양을 넘어 자가면역질환, 섬유화 질환, 심지어 노화 관련 질환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CAR-T 치료 한계는 치료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고 재발률이 높다는 점"이라며 "T세포의 탈진을 낮추고 체내 지속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인 치료 효과가 필수적인 자가면역질환 등에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첨단 분야로는 체내 생성형 CAR-T 치료제를 짚었다. 그는 "세포를

몸 밖에서 만드냐 몸 안에서 만드냐 방식 차이일 뿐 결국 T세포를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자 구조체가 핵심이며 KIR-CAR 플랫폼은 체내외 방식 모두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을 갖추고 있어 미래 치료 시장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양곤 HLB그룹 의장의 투자 배경도 관심을 끌었다.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의 핵심 기술인 'KIR-CAR 플랫폼'은 글로벌 빅파마 노바티스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기술적 한계로 반환된 바 있다. 당시 세계 최초 CAR-T 치료제로 알려진 김리아를 개발하는 팀을 이끌었던 마이클 밀론 박사 등이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했으나 펀딩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때 진양곤 의장이 시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장은 "HLB 목표는 단순 성공이 아니라 끊임 없는 성장"이라며 "간암, 담관암부터 CAR-T까지 각 파이프라인의 개별 진전이 아니라 연속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추사를 통해 "HLB는 진단, 치료, 예방으로 이어지는 바이오 생태계 전주기 밸류체인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독자 개발한 항암 신약으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성분 흡수율 나노기술로 극대화

아모레퍼시픽이 나노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유효 성분의 피부 흡수율을 극대화한 차세대 전달체 기술을 확보하며 'K 피부과학' 경쟁력을 높인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R&I 센터와 카이스트(KAIST) 최시영 교수 연구팀이 협력해 20나노미터(nm)급 초안정 나노 전달체 기술인 'Lipo3EX'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화장품 개발의 난제로 알려진 '유효물질 전달체' 크기 축소와 구조적 안정성을 모두 구현했다는 데 있다. 기존 50nm 이하 크기의 전달체는 온도, 산도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해 상용화가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은 식물 유래 성분인 '트리터페노이드'를 활용해 분자 간 결합을 강화하고 구조적 견고함을 확보했다.

실제 인체 피부 실험에서 해당 기술은 기존 전달체 대비 깊은 피부 층에서 고르게 확산되면서 유효 성분 전달 효율을 향상시켰다. 또 침탄 기법을 동원한 과학적 검증도 거쳤다. 극저온 전자현미경, X선 산란 분석,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분자 수준에서 정밀 분석이 이뤄졌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러한 피부 과학을 바탕으로 피부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며 관리하는 '피부 장수(스킨 롱evity)'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아모레퍼시픽 스킨케어 브랜드인 아이오펜, 프리메라 제품에 초소형·고안정 나노 전달체를 적용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 셀트리온, 佛 '지프레' 인수... 현지 약국 영업망 확보

佛 대체조제 확대 정책 선제 대응  
140여종 OTC·DM 제품군 추가

셀트리온이 114년 전통의 프랑스 헬스케어 기업 지프레(Gifrer)를 인수하면서 현지 의료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한 영업망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럽 내 제네릭·일반의약품(OTC)으로 사업 영역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인수는 셀트리온 프랑스 법인이 현지 10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인수 금액은 양사 협의에 따라 미공개된다. 양사는 인수 관련 행정절차

및 업무 조정 등을 신속히 진행해 이달 내 제반 업무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지프레를 독립 법인으로 운영해 지프레의 현지 브랜드 인지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양사 간 제품·영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프레에 재직 중인 임직원 70여명은 전원 고용 승계 된다.

지프레는 1912년 프랑스에서 설립돼 114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헬스케어 기업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9000개 이상의 약국 영업망과 800여개 병원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회사는 이번 인수를 통해 셀트리온

은 프랑스 정부의 '대체조제'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약국 영업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올해 '데노수맴(프롤리아-엑스지바)'의 대체조제 승인도 예상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바이오 시밀러인 '스토보클로-오센벨트'의 영업을 전개하는데 지프레가 보유한 영업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인수를 통해 140여종의 지프레 OTC·DM 제품군이 추가돼 이를 통한 추가 매출 확보가 가능해졌다. 셀트리온은 향후 5년간 지프레 제품군을 통해 약 250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 확

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직판 법인의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프레 제품군을 다른 국가에서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유럽 주요 5개국(EU5)에 속하는 독일에서는 셀트리온 현지 법인이 SC제형 제품에 대한 약국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프레 인수로 확보된 9000여 개 약국 영업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제3자 제네릭·OTC 제품 관리를 확보하는 방식의 사업 영역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SK케미칼 '기넥신', 누적 매출 6000억 달성

혈액 점도 낮추고 혈관 확장 효과  
국내 은행잎 추출물 의약품 첫 성과

SK케미칼의 혈액순환 개선제 기넥신이 국내에서 개발된 은행잎 추출물의 약품으로는 첫 매출 성과를 냈다.

SK케미칼은 '기넥신'이 누적 매출 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넥신은 SK케미칼 특허 기술로 은행잎 유효 성분을 표준화해 제조한 의약품이다. 혈액 점도를 낮추고 혈관을 확장해 준다. 또 기력력 감퇴 개선, 집중력

저하 개선 효과까지 갖췄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기넥신 매출은 344억원이다. 국내 은행잎 추출물 의약품 시장은 약 926억원 규모인 가운데, 기넥신의 시장 점유율은 37%에 달한다.

성장세도 가파르다. 지난 2021년 184억원, 2022년 262억원, 2023년 297억원, 2024년 309억원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SK케미칼은 기넥신이 일반적인 혈액순환 개선 영역은 물론, 뇌혈류 개선



지난 11일 SK케미칼 본사에서 박현선 파마사업대표(왼쪽에서 네 번째)와 임직원들이 '기넥신' 누적 매출 6000억원 달성을 기념하며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케미칼

을 통한 인지 기능 개선 영역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관련 임상 근거를 축적해 의료 현장에서 신경과뿐 아니라 내과, 일반과 등으로 처방 범위를 넓혔다.

SK케미칼 박현선 파마사업대표는 "기넥신은 혈액 순환 문제로 유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질환과 닿아 있는 의약품으로 인지 기능을 포함한 혈관 관련 영역에 대한 근거를 지속 확보하고 있다"며 "일반 대중 및 의료 전문가 대상 마케팅도 강화해 은행잎 추출물 1위 의약품으로 포지셔닝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JW중외제약 가네톡톡 숙취해소 스틱 현대인 간 건강 관리



JW중외제약이 자사 대표 브랜드 '가네톡' 제품군을 숙취해소 제품에서 확대 구축한다.

JW중외제약은 신제품으로 '가네톡톡 숙취해소 스틱' (사진)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새싹보리추출농축액 등 복합물을 주성분으로 처방한 것이 특징이다. 복합물 함량은 1포당 2000mg에 달하며, 여기에 L-아르지닌 10mg, 밀크씨슬추출물분말 10mg, 타우린 10mg, 비타민B군 등 부원료가 더해졌다.

이와 함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숙취해소 기능성을 입증했다. '숙취해소 효과 인체시험 적용 완료' 문구를 표시해 기능성표시제 식품임을 알린다. 또 포도맛 젤리형 막대 제품으로 설계해 물 없이 섭취할 수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가네톡톡 숙취해소 스틱은 기능성과 섭취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제품"이라며 "가네톡 브랜드의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2040 직장인에서부터 다양한 소비자 일상에서까지 간(肝) 건강을 관리하는 제품을 계속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